

2026 ARPS 교재 연례 개정

1권. 은퇴설계의 New Paradigm

쪽수	줄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17	하4 ~하1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 사에 따르면, 2024년 3월말 기준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 규모는 5억 4,022만원이다. 가 구주 연령 대별로 살펴보면 50대 가구가 보유한 자산이 6억 1,44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60 세 이상 가구가 보유한 자산은 평균 5억 8,251만원으로 50대 가구보다 적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 규모는 5억 6,678만원이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 가구가 보유한 95자산이 6억6,6205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60 세 이상 가구가 보유한 자산은 평균 6억95만원으로 50대 가구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 수정
19~20	하2 ~상2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2.7세이지만, 건강수명은 여기에 한참 못 미친다. 우리나라 통계청은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을 건강수명으로 발표하는데, 2012년 65.7세에서 2022년 65.8세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가 17년 가까이 되는 셈이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생명표에 따르면, 2024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7년이지만, 건강수명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국가 데이터처는 기대수명에서 유병 기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건강 수명을 발표한다. 2024년 생명 표에 따르면, 건강수명은 65.5년 이고, 유병기간은 18.2년으로 나타났다.	내용 수정
20	하6 ~하5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73.1세(남71.3세, 여 74.7세)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72.5세 (남 71.3세, 여 74.1 세)다.	내용 수정
24	상4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 있다	퇴직소득세를 30~50% 감면받을 수 있다	내용 수정
24	하7~6	종신형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55세부터 79세까지는 4.4%, 80세 이상은 3.3% 세율로 과세한다	55세 이후에 종신형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3.3% 세율로 과세된다	내용 수정

25	하7	2023년 출생아의 평균수명은 83.5세 (남자 80.6세, 여자 86.4세)이다.	2024년 출생아의 평균수명은 83.7세 (남자 80.8세, 여자 86.6세)다.	내용 수정
25~26	하1 ~상2	100세 이상 고령 한국인은 2010년 2,803명에서 2022년 7,169명으로 2.5배 늘어났다.	100세 이상 고령 한국인은 2016년 4,348명에서 2025년 8,228명으로 10년 사이 1.9배 늘어났다.	내용 수정
26	그림 1-2		첨부 1	그림 수정
28	하3~하1	한국 남성의 평균수명은 1970년 58.7세에서 2023년 80.6세로 21.9세 늘었다. 같은 기간 여성의 평균수명도 65.8세 에서 86.4세로 20.6세 늘어났다.	한국 남성의 평균수명은 1970년 58.7세에서 2024년 80.8세로 21.9세 늘었다. 같은 기간 여성의 평균수명도 65.8세 에서 86.6세로 20.6세 늘어났다.	내용 수정
28	그림 1-3		첨부 2	그림 수정
29	상 9~12	통계청 생명표에 따르면, 1970년만 하더라도 12.7년이었던 60세 남성의 기대여명이 2023년에는 23.4년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60세 여성의 기대여명도 18.4년에서 28.2년으로 늘어났다. 2023년 당시 60세인 남성은 평균 83.4세, 60세 여성은 평균 88.2세까지 살 것으로 기대된다는 뜻이다.	국가데이터처 생명표에 따르면, 1970년만 하더라도 12.7년이었던 60세 남성의 기대여명이 2024년에는 23.7년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60세 여성의 기대여명도 18.4년에서 28.4년으로 늘어났다. 2024년 당시 60세인 남성은 평균 83.7세, 60세 여성은 평균 88.4세까지 살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이다.	내용 수정
29	그림 1-4		첨부 3	그림 수정
30	상3~6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2000년 67.4세에서 2019년 73.1세로 5.7년 정도 늘어났다. 기대수명과 마찬가지로 건강수명도 여자가 남자보다 길다. 2019년 여자의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72.5세(남71.3세, 여 74.1세)다. 기대수명과 마찬가지로 건강수명도 여자가 남자보다 길다.	내용 수정

		건강수명은 74.7세로 남자의 71.3세보다 3.4년 정도 더 길다.		
30	상7~10	우리나라 통계청은 기대수명에서 유병기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건강수명을 발표하고 있다.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 방식으로 계산한 건강수명은 2012년 65.7세에서 2022년 65.8 세로 조금 늘어났다. 그리고 평균수명과 건강수명간 차이도 16.9년이나 된다. 2022년 유병기간은 남자가 14.8년이고 여자가 19.1년이다	우리나라 국가데이터처는 기대수명에서 유병기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건강수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년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65.5년, 유병기간은 18.2년이다. 성별로 유병기간을 살펴보면, 여자(20.2년)가 남자(16.2년)보다 4년 길게 나타났다.	내용 수정
30	하6~5	WHO 방식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73.1세로 일본(74.1세), 싱가포르(73.6세)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해당 문장 삭제	삭제
33~34	하2 ~상1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73.1세다. 기대수명에서 건강수명을 빼면 병치레 기간이 10년 가량되 제2절 고령화와 장수리스크 33는 셈이다	해당 문장 삭제	삭제
34	상2~5	2022년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인 남자의 기대수명은 79.9세인데 반해 건강수명은 65.1세에 불과하다. 한국인 남자들은 평균 14.8년 동안 병을 가지고 살고 있는 셈이다. 반면 한국인 여자의 기대여명은 85.6세인데 반해 건강수명은 66.6세로, 유병기간이 19.1년이나 된다. 남자와 비교하면 여자의 유병기간이 4.3년이나 길다	2024년 생명표에 따르면, 한국 남자의 기대수명은 80.8년, 건강수명은 65.5년, 유병기간은 16.2년이다. 반면 한국 여자의 기대여명은 86.6세, 건강수명은 66.4세, 유병기간이 20.2년이다. 남자에 비해 여자의 유병기간이 4년이나 길다.	내용 수정
34	그림1-6		첨부 4	그림 수정

35	상5~8	<p>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의 34.9%가 혼자 살고 있다. 비혼, 이혼, 사별이 늘어나면서 고령 1인가구 비중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2050년이 되면 전체 65세 이상 고령가구 중에서 41.1%가 혼자 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p>	<p>국가데이터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의 36.8%가 혼자 살고 있다. 비혼, 이혼, 사별이 늘어나면서 고령 1인가구 비중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52년에는 65세 이상 고령가구 중에서 42.1%가 혼자 살 것으로 전망된다.</p>	내용 수정
35	그림1-7		첨부 5	
40~41	하5~상4	<p>1990년만 하더라도 22.1%에 불과했던 20대 후반 여성의 미혼율이 2015년에는 77.3%로 꺾충 뛰어올랐다. 같은 기간 30대 초반 여성의 미혼율도 5.3%에서 37.5%로 치솟았고, 30대 후반 여성의 미혼율도 2.4%에서 19.2%로 상승했다. 남성 미혼율도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20대 후반 남성의 미혼율은 57.8%에서 90.0%로, 30대 초반은 13.9%에서 55.8%로, 30대 후반은 3.8%에서 33%로 상승했다.</p> <p>미혼비율이 증가하면서 초혼연령도 덩달아 늦어지고 있다. 1995년만 하더라도 25.3세였던 여성의 초혼연령이 2016년에는 30.1세로 5년 가까이 늦춰졌다. 같은 기간 남성의 초혼연령도 28.4세에서 32.8세로 4년 넘게 늦어졌다. 이렇게 만혼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구당 자녀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p>	<p>초혼 연령이 늦춰지는 것도 출산을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2014년 29.8세였던 여성의 초혼 연령은 2024년 31.6세로 1.7년 늦어졌다. 같은 기간 남성의 초혼 연령도 32.4세에서 33.9세로 1.4년 늦어졌다.</p>	내용 수정

41	그림1-9		첨부 6	그림 수정
43~44	하3~상3	<p>이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그대로 드러난다.</p> <p>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2차 베이비부머가 속해 있는 50대 가구는 평균 6 억 1,448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40대 가구가 평균 5억 8,212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가구당 평균 3천만 원을 더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1차 베이비부머들이 속한 60대 가구가 보유한 자산 규모도 5억 8,251만원이나 된다.</p>	<p>이는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그대로 드러난다.</p> <p>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부머가 속한 50대 가구가 보유한 자산은 평균 6 억 6,205만원이다. 반면 1차 베이비부머가 속한 60대 가구가 보유한 자산은 평균 6억 95만원으로 50대보다 적었다.</p>	내용 수정
43	표1-3		첨부 7	표 수정
45	하7~4	<p>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0.8%에서 2024년 19.2%로 크게 증가했다. 앞으로도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해 2025년에 고령인구 비중 이 20.6%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p>	<p>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는 사회를 초고령사회라 한다.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3%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p>	내용 수정
45	하3-1	<p>생산연령인구 100 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2023년 26.1명이고, 2035년에는 48.6명, 2050년에는 78.6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p>	<p>생산연령인구 100 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2025년 29.3명에서 2035년 47.7명, 2050년 77.3명으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p>	내용 수정
46	그림1-11		첨부 8	그림 수정

46	하9~5	<p>UN에서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정의하고 있다. 2021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주요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16.6%)는 미국(16.7%), 영국(18.9) 등과 함께 고령사회에 도달했다. 그리고 일본(29.8%)과 이탈리아(23.7%)를 비롯한 13개 국가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하는 기간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얼마나 빨리 늘어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4%에서 20%로 상승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오스트리아가 53년, 영국이 50년, 미국 15년, 일본이 10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p>	<p>OECD가 2021년에 발표한 주요 국가 고령인구 비중 데이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지 실감할 수 있다.</p> <p>OECD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오스트리아는 53년, 영국은 50년, 미국은 15년, 일본은 10년이 걸리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7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p>	내용 수정
47	상1~13	<p>지역별로 보면 이미 초고령사회에 도달한 곳도 있다. 2023년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 이 초고령사회인 지역은 전남(24.5%), 경북(22.8%), 전북(22.4%), 강원(22.1%), 부산(21.0%) 5곳이다. 광역시에 해당하는 부산이 벌써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 눈에 띈다. 2028년이 되면 세종(13.4%)을 제외한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인구를 남녀 성별로 나눠보면 어떨까? 2024년 고령인구 비중을 성별로 보면, 여</p>	<p>지역별로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곳이 적지 않다. 2025년 기준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지역으로는 전남(27.4%), 경북(26.1%), 강원(25.7%), 전북(25.4%), 부산(24.5%), 경남(22.2%), 충북(21.9%), 대구((21.2%)이 있다. 광역시인 부산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 눈에 띈다. 2028년이 되면 세종(13.5%)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8년에는 세종시마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p>	내용 수정

		<p>자가 21.5%, 남자가 17.0%로 여자의 고령인구 비중이 남자보다 4.5% 포인트 높다. 65세 이상 여자 100명당 남자 수는 2022년 78.4명에서 계속 증가해서 2050년에는 86.2명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인구를 연령대별로 세분해서 살펴보자. 2023년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8.4%이다. 이중 65~69세 인구가 6.3%, 70~74세 인구가 4.3%, 75세 이상 인구가 7.7%이다. 일본에서는 고령자를 전기고령과 후기고령으로 구분하고 있다. 65세부터 74세 이하 인구는 전기고령자, 75세 이상을 후기고령자라고 한다. 이 같은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2023년 전기고령자는 551만 4천명이고, 후기고령자가 398만 6천명이다. 전기고령자가 후기고령자보다 152만 8천명이 더 많다. 하지만 2037년부터는 후기고령자의 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p>	<p>상된다.</p> <p>2025년 고령인구 비중을 남녀성별로 살펴보면, 여자 고령인구 비중(22.6%)이 남자 고령인구 비중(18.0%)보다 4.6% 포인트 높았다. 65세 이상 여자 100명당 남자 수는 2025년 79.6명에서 2050년에는 85.9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p> <p>고령인구를 연령대별로 세분해서 살펴보자. 2025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에서 65~69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7.1%, 70~74세 인구 비율은 4.9%, 75세 이상 인구 비율은 8.3%다.</p> <p>고령자는 75세를 전후로 전기와 후기로 구분한다. 2025년 현재 전기고령자는 621만 6천명으로 후기고령자 429만 8천명보다 많다. 하지만 2038년부터는 전기고령자보다 후기고령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p>	
47	그림1-13		첨부 9	그림 수정
54	하5~3	<p>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근로자의 경우 자신의 급여의 9%(회사 4.5%, 근로자 4.5%)를 국민연금에 적립한다. 1년이 12달이므로 9%라고 하면 한 달 치 급여에 해당한다.</p>	<p>2026년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다. 그리고 2033년 보험료율이 13%가 될 때까지 매년 보험료율이 0.5%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소득의 9.5%~13%면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한다.</p>	내용 수정
55~56	하3~상2	<p>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친 국내 연금자산 규모는 2021년 말 1,613조원이다. 2011년 말 국내</p>	<p>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친 국내 연금자산 규모는 2014년 863조원에서 2024년 2,181조원</p>	내용 수정

		연금자산 규모가 576조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남짓 되는 기간에 2.8배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자산은 349조원에서 949조원으로 2.7배 성장한 반면 사적연금은 227조원에서 664조원으로 2.9배 성장했다. 사적연금 규모가 국민연금보다 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셈이다.	으로 10년 사이 2.5배 성장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자산은 470조 원에서 1,438조 원으로 3배 늘어났고, 사적연금 자산은 393조원에서 1,078조원으로 2.7배 늘어났다.	
56	표1-4		첨부 10	표 수정
56	상3~5	특히 퇴직연금 자산의 증가 폭이 컸다. 2011년 50조원에 불과했던 퇴직연금자산은 2021년에는 296조원으로 성장했다. 최근 개인연금 중 세제적격연금이 세제비적격 연금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 볼만하다	특히 사적연금 자산의 증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2014년 말 107조 원이었던 퇴직연금자산은 2024년말 432조원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세제적격연금은 100조원에서 179조원으로, 세제비적격연금은 185조원에서 358조원으로 늘어났다. .	내용 수정
56	표1-5		첨부 11	표 수정
58	하5~1	처음에는 5년 단위로 경험생명표를 개정했지만, 수명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2006년부터는 3년마다 한 번씩 개정 하고 있다. 제1회 경험생명표를 적용했던 1989년 당시만 하더라도 75.7세였던 여성의 평균 수명이 제10회 경험생명표에서는 88.5세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남성의 평균수명도 66.8세 에서 83.5세로 늘어났다.	경험생명표는 3~5년에 한번씩 개정한다. 제1회 경험생명표를 적용했던 1988년 당시 75.6세였던 여성의 평균 수명이 제10회 경험생명표에서는 90.7세 늘어났고, 같은 기간 남성의 평균수명도 66.7세 에서 86.3세로 늘어났다.	내용 수정

59	그림1-15	그림1-15	표 1-6으로 대체 첨부 12	그림 수정
59	상3~5	1982년 당시만 해도 공무원 중에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겠다고 선택한 사람은 32.6%에 불과했다. 2022년에는 연금선택 비율이 92.5%에 이르고 있다. 30년 사이에 연금을 선택한 사람이 3배 가까이 상승한 셈이다.	1982년 당시만 해도 퇴직하는 공무원 중에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겠다고 선택한 사람은 32.6%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4년에는 연금선택 비율이 92.0%에 이르고 있다. 40년 사이에 연금을 선택한 사람이 4배 가까이 상승했다.	내용 수정
59	상7~8	먼저 수명연장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1982년 당시 67.2세던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2021년에는 83.6세로 16.4년 늘어났다.	먼저 수명연장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1982년 당시 66.7세던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2024년에는 83.7세로 늘어났다.	내용 수정
60	그림1-16		그림 1-15으로 교체 첨부 13	그림 수정
60	그림1-17		그림 1-16으로 교체 첨부 14	그림 수정
62	하4~1	한국은 200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18년, 다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7년이 소요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인구비율이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2018년에는 고령인구비율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24말에는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가 됐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18년이 걸렸는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7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내용 수정
75	상3~6	2020년 실시된 가족실태조사에는 부모와 자녀 간 지원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는	2023년 실시된 가족실태조사에는 부모와 자녀 간 지원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	내용 수정

		<p>경우는 32.5%로 15년 전과 비교하면 4.7% 포인트 하락했다. 한편 성인 자녀에게 부모님의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해 물었더니, '부모님이 스스로 해결한다'는 답변이 61.8%로 15년 전(41.6%) 대비 19.8% 포인트 늘어났다.</p>	<p>는 경우는 20.0%로 2000년 조사와 비교하면 12.5% 포인트나 떨어졌다. 한편 성인 자녀에게 부모님의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해 물었더니, '부모님이 스스로 해결한다'는 답변이 67.4%로 2000년 조사와 비교하면 5.6% 포인트 상승했다.</p>	
84	하10~1	<p>2018년 통계청에서 15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견해를 조산한 적이 있다. 이 때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답변 이는 11.3%에 불과했다. 여기에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37.3%)고 답한 이들까지 더하더라도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답한 이들이 46.3%나 됐다.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기혼보다 미혼에서 높게 나타났다. 기혼의 경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14.1%나 되는 데 반해, 미혼은 4.2%만 그렇다고 답했다.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 비율도 기혼은 41.6%나 되는 데 반해 미혼은 26.3%만 그렇다고 답했다.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에서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25.8%나 됐지만, 30대는 4.7%만 그렇다고 답했다.</p>	<p>국가데이터처가 2024년 사회조사에서 결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중 46.8%만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 중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겨우 10.2%에 불과했고, '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응답자도 36.6%밖에 안됐다. 반면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답한 이들이 50.6%나 됐다.</p> <p>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기혼보다 미혼에서 높게 나타났다. 기혼의 경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13.5%인데 반해, 미혼은 3.4%만 그렇다고 답했다.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율도 기혼은 40.2%나 됐지만 미혼은 절반(21.2%) 밖에 안됐다.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에서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21.4%나 됐지만, 30대는 3.9%, 20대는 3.2%만 그렇다고 답했다.</p>	내용 수정
85	그림2-4		첨부 15	그림 수정

88~89	하3~상1	통계청에 따르면 초혼부부 중 맞벌이 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42.9%에서 2021년 54.9%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외벌이 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49.5%에서 40.2%로 하락했다. 2018년부터 초혼부부 중 맞벌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외벌이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2021년 외벌이 부부 중에는 남편만 일하는 가구가 34.5%, 아내만 일하는 가구가 5.7%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초혼 부부 중에서 맞벌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42.9%에서 2023년 62.5%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외벌이 부부 비중은 49.5%에서 32.4%로 하락했다. 2018년부터 초혼 부부 중 맞벌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외벌이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2023년 외벌이 중 남편만 일하는 가구는 28.1%, 아내만 일하는 가구는 4.3%로 나타났다.	내용 수정
89	그림2-5		첨부 16	그림 수정
89	하5~1	그렇다면 전체 맞벌이 가구 비중은 얼마나 될까? 2022년 하반기 통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가구(1,269만 1천 가구) 중에서 맞벌이 가구(584만 6천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6.1%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별로 맞벌이 가구 비중을 보면, 15~29세 50.1%, 30대 54.2%, 40대 55.2%, 50대 55.2%, 60세 이상 31.1%다. 60세 이상의 전 연령층에서 맞벌이 가구 비중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전체 맞벌이 가구 비중은 얼마나 될까? 2023년 하반기 국가데이터처 조사에 따르면, 유배우가구(1,268만 7천 가구) 중 맞벌이 가구(611만 5천 가구) 비중은 48.2%다. 가구주 연령별로 살펴보면, 15~29세는 52.6%, 30대는 58.9%, 40대는 57.9%, 50대는 58.0%, 60세 이상은 32.5%가 맞벌이를 하고 있었다.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맞벌이 비중이 50%가 넘었다.	내용 수정
89	그림2-6		첨부 17	그림 수정
91~92	하3~상2	통계청이 2022년 하반기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를 하는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3.3%로, 전체 유배우 가구에서 맞벌이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	국가데이터처의 2023년 하반기 조사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가구 중 맞벌이 비중은 56.8%로, 전체 유배우가구 중 맞벌이가 차지하는 비중(48.2%)보다 높았다. 막내 자녀	내용 수정

		(46.1%)보다 7.2%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막내 자녀 연령별로 맞벌이 가구 비중은 6세 이하가 47.5%, 7~12세가 55.6%, 13~17세가 59.4%로 나타났다. 막내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맞벌이 가구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나이를 기준으로 맞벌이 비중을 살펴보면, 영유아(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의 51.5%, 초등학교(7~12세) 자녀를 둔 가구의 57.9%, 중고교생(13~17세) 자녀를 둔 가구의 62.6%가 맞벌이를 하고 있었다. 막내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맞벌이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92	그림2-7		첨부 18	그림 수정
93~94	하1~상3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으로 49만 2,683쌍의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부는 노령연금으로 매달 435만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부부는 두 사람이 받는 연금을 합쳐도 그리 많지 않다. 부부 연금수급자가 받는 평균연금액은 85만원이 안됐다.	국민연금공단은 2024년 9월 현재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가 72만 4,492쌍이라고 집계했다. 이들 부부 중 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부는 노령연금으로 매달 498만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 부부는 두 사람이 받는 연금을 합쳐도 그리 많지 않았다. 부부 연금수급자가 받는 평균연금액은 103만 5천원이었다.	내용 수정
94	그림2-8		첨부 19	그림 수정
94	상9~10	2021년 9월 기준으로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는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27%를 차지한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는 107만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17%를 차지했고, 이들은 월평균 25.3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	내용 수정
94	하8~7	하지만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지 20년을 넘어서면서 대부분 은퇴자들이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추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으로 62만 4,695쌍의 부부가	내용 삭제	삭제

		모두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부부 합산 노령연금액이 가장 많이 받는 부부는 매달 446만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부부는 두 사람이 받는 연금을 합쳐도 그리 많지 않다. 부부 수급자가 받는 평균 연금액은 93만원이다. 부부가 모두이만큼 노령 연금을 받는다면, 최소 생활비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노후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부부 모두 완전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 두는 것이다.		
95	상13~15	실제 추후납부제 도가 시행된 이래 역대 최고 금액 납부자 상위 10명을 살펴보면, 이들의 평균 연령은 54.4세 이고 모두 1억원이 넘는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했다. 이 중 최고액은 1억 1,158만원에 이른다.	내용 삭제	삭제
95	하6~3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할 때, 1988~1998년까지는 70%, 1999~2007년까지는 60%, 2008년 이후부터는 50%에서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에 40% 수준이 되도록 되어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88년부터 1998년까지는 70%, 1999년부터 2007년까지는 60%를 적용했다. 그리고 2008년 이후부터는 50%에서 매년 0.5%씩 낮춰 2025년에는 41.5%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국민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3%로 상향 조정했다.	내용 수정
96	표2-2		첨부 20	표 수정
97	하4~1	통상 황혼이혼이라 하면 혼인지속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이혼 중 황혼이혼	통상 혼인지속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황혼이혼이라 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전체 이혼에서 황혼이	내용 수정

		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3.8%에서 2021년 39.4%로 증가했다	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8.7%에서 2024년 36.2%로 상승했다.	
98	그림2-9		첨부 21	그림 수정
99	그림2-10		첨부 22	그림 수정
100	상7~10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04년 연말만 하더라도 342명에 불과했던 분할연금 수령자가 2022년 말에는 68,196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분할연금 수급자 중 여성이 60,413명으로 89%나 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04년 말 407명에 불과했던 분할연금 수령자가 2024년 10월말에는 105,248명으로 늘어났다. 분할연금 수급자 중에는 여성 비율이 88%(92,513명)나 된다.	내용 수정
102	하7~1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생명표에 따르면 남자의 기대수명은 80.6년이고, 여자는 86.6년이다. 여자가 남자보다 6년은 더 사는 셈이다. 2022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가 33.7세이고 여자가 31.3세다. 남편이 아내보다 평균 2.4세 많은 셈이다. 이 둘을 더하면 아내가 남편보다 평균 8.4년은 더 산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래서일까? 고령 1인 가구주 중에는 유독 여자가 많다. 2023년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는 549만 1천가구다. 이중 36.3%에 해당하는 199만 3천가구가 1인가구다.	2024년 생명표에 따르면 남자의 기대수명은 81.6년이고, 여자는 87.5년이다. 여자가 남자보다 5.9년은 더 사는 셈이다. 2024년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가 33.9세이고 여자가 31.6세다. 남편이 아내보다 평균 2.3세 많다. 단순히 둘을 더하면 아내가 남편보다 평균 8.2년은 더 산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래서일까? 고령 1인 가구주 중에는 유독 여자가 많다. 2023년 현재 고령1인가구는 227만 6천가구다. 이중 여성 가구주(153만 4천 가구)가 남성 가구주(74만 2천 가구)보다 2배나 많다.	내용 수정
103	상3~10	2022년 12월 노령연금 수급자는 531만명이 넘는데, 이중 여성은 200만명으로 37.6%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넘는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는 95만명인데 이중 여자는 14	2025년 10월 노령연금 수급자는 630만명이 넘는데, 이중 여성은 253만명으로 40.2%를 차지한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넘는 완전노령연금 수급자(131만명) 중 여자는	내용 수정

		만명으로 14.8%밖에 안 된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 안돼 특례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122만명인데, 이중 여자는 46만명으로 38%나 된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비례해 늘어난다. 2022년 12 월 완전노령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98만원을 받고 있는데 반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19년 이하인 사람은 노령연금으로 월평균 40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특례노령연금을 받는 이들은 월평균 23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22만명으로 16.8%밖에 안 된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 안되는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107만명) 중 여자는 42만명으로 39.4%나 된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비례해 늘어난다. 2024년 10 월 완전노령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112만원을 받는데 반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19년 이하인 사람은 노령연금으로 월평균 41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특례노령연금을 받는 이들은 월평균 25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104	그림2-13		첨부 23	그림 수정
108	하2~1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이혼 중 황혼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3.8%에서 2021년 39.4%로 증가했다	내용 삭제	삭제
115	상7~9	퇴직 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가량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에도 도움이 된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50%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에도 도움이 된다.	내용 수정
119~120		퇴직연금 통계를 보면 연금 수령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다.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춘 퇴직 연금 계좌 중 연금으로 수령한 비율은 2016년 1.6%에서 2022년에는 7.1%로 늘었다. 고작 7.1%인 것을 두고 왜 호들갑을 떠느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 중 소액 계좌가 많기 때문이다. 적립금이 적는데 연금을 선택하면 연금액도 적고 절세 혜택도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은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 같은 연금수령 요건을 갖춘 퇴직 연금계좌 중에서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2016년 1.6%에서 2024년에는 13.0%로 늘었다. 연금수령비율인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봐야 겨우 13% 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호들갑을	내용 수정

		<p>크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 일시에 현금으로 찾아 쓴다. 하지만 적립금이 커지면 얘기가 달라진다.</p> <p>이때는 금액이 큰 만큼 일시금으로 수령했을 때 퇴직소득세가 부담스럽다. 차라리 연금을 선택해 퇴직소득세 부담도 30%가량 덜고, 연금수령액으로 소득 공백을 메우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적립금이 많은 사람은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한다. 계좌 수가 아 니라 적립금을 기준으로 하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 비율이 2016년 20.3%에서 2021년 32.6%로 상승했다. 퇴직연금 적립금 중 3분의 1은 연금으로 지급되는 셈이다.</p>	<p>편다고 할 수도 있다. 이는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 중 소액 계좌가 많기 때문이다. 적립금이 적으면 연금액도 적고 절세 혜택도 크지 않다.</p> <p>하지만 적립금이 커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금액이 크면 일시금으로 수령했을 때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다. 연금을 선택하면 퇴직소득세를 30~50% 감면 받을 수 있고, 연금수령액으로 국민연금수령까지 소득공백도 메울 수 있다. 그래서 연금계좌 적립금 규모가 큰 사람일수록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 연금계좌 적립금을 기준으로 하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은 2016년 20.3%에서 2024년 57.0%로 상승했다.</p>	
137	하8~5	2025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7.09%인데, 절반은 회사에서 납 부하므로 근로자는 3.545%만 납부하면 된다.	2025년 현재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7.19%인데, 이중 절반은 회사에서 납부하므로 근로자는 소득의 3.595%만 보험료로 납부하면 된다.	내용 수정
141	하3~1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정하는데, 2019년 1월 이후 이직한 경우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해 산정한다. 2023년 1월 이후 1일 하한액은 61,568원이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정한다. 먼저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시급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2026년 현재 하한액은 1일 66,048원이고, 상한액은 1일 68,100원이다.	내용 수정
149	하3-1	2022년 통계청에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고령자(65세~79세)에게 일하려고 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생활비에 보탬'이라고 답한 사람이 53.3%로 가장 많았	국가데이터처가 2025년 고령자 통계에서 65세~79세 사이 고령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원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라고 답한 고	내용 수정

		고, '일하는 즐거움' 이라고 답한 사람도 37.3%나 됐다.	령자가 53.3%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 취업을 원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38.1%나 됐다.	
150	그림3-7		첨부 24	그림 수정
156	하7~1	남녀별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차이를 살펴보자. 2022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남자 79.9 년, 여자 85.6년이다. 반면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대여명은 남자는 65.1 세, 여자는 66.6세이다. 남자는 평균 14.8년, 여자는 평균 19.1 년 동안 병치레를 하는 셈이다. 이번에는 직장인의 정년에 해당하는 60세 남녀를 비교해보자. 2022년 60세 기대여명은 남성이 22.8년 여성이 27.4년이다.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대여명은 남성이 11.6년, 여성이 12.3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60세 남성의 기대여명에서 건강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55.1% 이지만, 여성은 4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차이를 살펴보자. 2024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남자 80.8 년, 여자 86.6년이다. 반면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대여명은 남자는 64.6년, 여자는 66.4년이다. 남자는 평균 16.2년, 여자는 평균 20.2년 동안 병치레를 하는 셈이다. 이번에는 직장인의 정년에 해당하는 60세 남녀를 비교해보자. 2024년 60세 기대여명은 남성이 23.7년 여성이 28.4년이다.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대여명은 남성이 11.8년, 여성이 12.5년으로 나타났다. 기대여명 중 건강하게 생활하는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60세 남성은 49.6%, 여성은 44.2% 밖에 안된다.	내용 수정
157	표3-12		첨부 25	표 수정
170	상2~3	2023년 기준으로 보험료율은 7.09%인데, 이 중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보수월액의 3.545%만 보험료로 납부한다.	2026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율은 7.19%인데, 이 중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보수월액의 3.595%만 보험료로 납부한다.	내용 수정
170	상10~11	연금소득이 1,000만원이면 소득이 500만원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내용 삭제	삭제
170	상13~14	먼저 2,000만원을 초과소득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구하고, 여기에 보험료율(7.09%)을	먼저 2,000만원을 초과소득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구하고, 여기에 보험료율(7.19%)을	내용 수정

		급여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출한다.	급여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출한다.	
170	하8~7	이 중 전월세 금액은 30%를 재산가액으로 평가한다.	전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40배 한 금액의 30%를 재산가액으로 평가한다.	내용 수정
170	하4~1	하지만 은퇴자가 수령하는 연금에 죄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걸까? 그렇지 않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소득에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내용 수정
171	표3-14		첨부 26	표 수정
172	상1~2	하지만 이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법에서 정한 내용과 현실 적용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법률과 현실사이에 괴리가 있는 셈이다.	내용 수정
172	상10~11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한 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내용 삭제	삭제
171	하7~1	그러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얼마 낼까? 먼저 소득보험료부터 살펴보자. 연 소득이 336 만 원보다 적은 세대는 최소보험료 19,780원을 납부한다. 연 소득이 336만원보다 많은 세대는 소득의 7.09%를 보험료로 납부한다. 재산은 60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부과한다. 그리고 1점에 208.4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를 합산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출한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12.9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한다. 구체 적인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지역건강보험료 모의계산 서비스	그러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얼마 낼까? 먼저 소득 보험료부터 살펴보자. 연소득이 336 만 원보다 적은 세대는 최소보험료 20,160원을 납부한다. 연소득이 336만원보다 많은 세대는 소득의 7.19%를 보험료로 납부한다. 재산은 60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그리고 1점에 211.5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를 합산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출한다. 월보험료 상한액은 4,591,740원이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13.14%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한다. 구체적인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용 수정

		스를 이용하면 계산해 볼 수 있다. 아래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소득, 재산, 자동차 가격별로 보험료를 계산해 본 것이다.	제공하는 지역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산해 볼 수 있다..	
172	표3-15		첨부 27	표 수정
172	하6~2	<p>일반건강검진 대상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다. 직장가입자 중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주와 20세 이상 세대원은 2년에 1회 건강검진 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20세 이상 피부양자도 2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p> <p>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공통으로 받을 수 있는 검진 항목에는 문진 및 체위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검진 등이 있다. 공통 항목 이외에 성별, 연령별로도 다양한 검</p> <p>172 제3장 정년퇴직 전후 노후 준비 점검 진을 받을 수 있다. 40세에는 B형간염 검사, 54세와 66세 여성은 골다공증 검사, 66세 이상 은 2년에 한 번씩 인지 기능장애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정해진 연령마다 우울증, 생 활습관평가, 노인신체 기능 검사, 치면세균막검사 등을 받을 수 있다.</p>	<p>일반건강검진 대상은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64세 의료급여 수급자다. 일반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실시하며, 비사무직은 매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p>	내용 수정
173	표3-16		첨부 28	표 수정
173	하4~1	일반건강검진 이외에 암검진도 있다. 40세 이상인 자는 2년마다 위암, 유방암 검진을 받을 수 있	일반건강검진 이외에 암검진도 있다.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	내용 수정

		다. 50세 이상인 자는 1년에 한 번씩 대장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정해진 시기 에 간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도 받을 수 있다. 암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단이 90%, 수검 자가 10%를 부담한다. 다만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검진 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또는 위장조영 검사를 받을 수 있다.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으면 대장내시경검사를 받는다. 40세 이상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자는 6개월 마다 간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를 받는다.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 촬영 검사를 받고,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는다. 54세~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CT검사를 하고 사후 결과 상담을 받는다. 건강검진 비용은 공단이 90%, 수검자가 10% 부담한다. 단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이 부담한다.	
175	상2~5	먼저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3년 기준 780 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780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는데, 이를 사전급여라 한다.	2026년 기준으로 동일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한 해 843만원을 넘게 되면, 환자는 843만원까지만 부담하고, 초과 금액은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 이를 사전급여라 한다.	내용 수정
175	표3-18		첨부 29	표 수정
176	상12~17	65세 이상 고령자는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을 절반 가량 지원 받을 수 있다. 고령으로 갈수 록 치아 관련 시술에 큰 비용이 들어가게 마련이다. 통상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데 1개당 평균 120만원이 들고, 틀니도 위턱과 아래턱 각각 100만~130만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간다. 그 나머	65세 이상 고령자는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을 절반 이상 지원 받을 수 있다. 고령으로 갈수 록 치아 관련 시술에 큰 비용이 들어가게 마련이다. 통상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데 1개당 평균 120만원이 들고, 틀니도 위턱과 아래턱 각각 100만~130만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간다. 그	내용 수정

		다행이라면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 중 절반을 건강보험에서 지원 해 준다는 점이다. 틀니는 아래턱과 위턱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임플란트는 1인당 2개만 지원받을 수 있다.	나마 다행이라면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 중 7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 해 준다는 점이다. 틀니는 아래턱과 위턱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임플란트는 1인당 2개만 지원받을 수 있다.	
190	상15~19	2023년 1월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 회가 발표한 5차 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0년에 적자로 전환해서 2055 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2057년이면 지금 2030세대들이 은퇴생활을 시작할 무렵이다.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다.	내용 삭제	삭제
223	9~11	2023년은 베이비부머의 막내인 1963년생이 60세가 되는데, 60세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서 정한 근로자의 법적 정년에 해당한다. 700만명이 넘는 베이비부머들이 주된 직장을 떠나 은퇴 생활을 시작한 셈이다.	1차 베이비부머(1955~63년생)은 대부분 주된 직장을 떠나 은퇴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2차 베이비부머(1964~74년생)는 대부분 50대로 정년을 목전에 두고 있다.	내용 수정
223	하7~6	2022년말에는 노령연금을 200만원 넘게 받은 사람이 5,410명이었는데, 2023년말에는 그 수가 15,907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노령연금을 월2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은 2022년말 5,410명에서 2025년 3월말 74,845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내용 수정
224	상9~11	2023년 12월 노령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연금액은 월평균 62만원으로 아직 용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들은 월평균 103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5년 10월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68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 되는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들은 월평균 112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내용 수정
225	상2~5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도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내용

		입되고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퇴직연금 적립금은 400조원을 넘어섰다. 그렇다면 실제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2023년 중에 퇴직연금 수령을 시작한 529,664계좌 중 10.4%에 해당하는 55,124계좌가 연금으로 수령했다. 나머지 89.6%는 일시금을 선택했다.	도입된 이후 20년이 지났다. 그 사이 퇴직연금 적립금은 500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은 아직은 높지 않다. 2024년 중에 퇴직연금 수령을 시작한 573,436개 계좌 중에서 13.0%에 해당하는 74,367개 계좌가 연금으로 수령했다. 나머지 87%는 일시금을 선택했다.	수정
225	상13~15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 중에서 일시금을 선택한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645 만 원이다. 이 돈을 1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월 15만원도 안 되는 금액을 수령 하게 될 것이다.	2024년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 중에서 일시금을 선택한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645 만원이었다. 이 돈을 가지고 1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고 한다면, 매달 겨우 15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받게 될 것이다.	내용 수정
225	하7~6	2023년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 중 연금을 선택한 계좌의 평균 수령액 은 1억 3,976만원이다.	2024년에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 중에서 연금수령을 선택한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억 4,694만원이었는데, 이는 일시금 수령을 선택한 계좌의 평균 수령액(1,654만원)보다 8.9배 많은 금액이다.	내용 수정
225	하2	2023년에는 그 비율이 10.4%로 치솟아서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섰다.	2023년에는 10.4%, 2024년에는 13.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내용 수정
226	상1~1	2023년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의 적립금은 15.5조원 중 연금을 선택한 계좌 적립금은 7.7조원으로 절반에 육박한다. 계좌 수를 기준으로 하면 연금 선택 비율이 10.4%에 불과하지만, 금액을 기준으로 49.7%가 연금 을 선택한 셈이다.	2024년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의 적립금은 19.2조원인데, 이중 연금수령을 선택한 계좌의 적립금이 10.9조원이다. 전체 적립금 중 57%를 넘는 금액을 연금으로 인출한 셈이다.	내용 수정
226	그림4-18		첨부 30	그림 수정
226	하7~1	2017년 말 15 조 2,822억원이었	2023년 75.6조원이었던 개인형	내용

		<p>던 개인형 IRP 적립금이 2023년 말에는 75조 6,247억원으로 연평균 30% 씩 늘어났다. 같은 기간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은 168.4조원에서 382.3조원으로 연평균 15% 씩 성장하는데 그쳤다. 전체 퇴직연금 시장보다 개인형 IRP가 2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셈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개인형 IRP 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9.1%에서 2023년 19.8%로 2배 넘게 늘어났다.</p>	<p>IRP 적립금이 2024년에는 98.7조원으로 30.6%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이 382.4조원에서 431.7조원으로 12.9% 성장하는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개인형IRP 적립금은 2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개인형IRP 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9.8%에서 22.9%로 크게 늘었다.</p>	수정
227	그림4-19		첨부 31	그림 수정
227	상1~6	<p>이 정도 상황이면 퇴직연금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개인형 IRP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개인형 IRP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베이비부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1차 베이비부머들은 대부분 퇴직지만, 1968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부머가 정년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IRP 시장의 성장세는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형 IRP 시장의 성장과 함께 퇴직연금 자산관리 방법도 축적에서 인출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p>	<p>이 같은 상황이면 개인형IRP가 퇴직연금 시장의 성장을 주도G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형IRP가 퇴직연금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베이비부머 대량퇴직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형 IRP 시장의 성장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차 베이비부머(1964~74년생)의 퇴직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형 IRP 시장의 성장과 함께 퇴직연금 자산관리 방법도 축적에서 인출로 전환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p>	내용 수정
227~228	하6~상 11	<p>2016년 이후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해마다 만 명 남짓 증가하고 있었는데, 2022년에는 가입자가 14,580명이나 늘어났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하락에서 그 원인을 찾고</p>	<p>주택연금은 2007년 7월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처음에는 가입자가 많지 않았지만,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베이비부머들은 월급을 대신할 소득원을</p>	내용 수정

		<p>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은 가입 당시 집값에 따라 결정되는 데, 일단 연금액이 한번 정해지고 나면 이후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동일한 연금액을 계속 수령하게 된다.</p> <p>가입자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면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최근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 원인을 전적으로 집값 하락의 영향으로만 볼 수는 없다. 집값 하락만 원인이라고 한다면 집값이 상승할 때는 가입자가 줄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집값이 크게 오르던 시기에도 주택연금 가입자가 한 해 만 명씩 늘어났다.</p> <p>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주택연금 수요자의 증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베이비부머들을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월급을 대신을 소득원을 찾아야 한다. 이때 베이비부머가 보유한 자산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살고 있는 집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주택연금만으로 노후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에 관심을 가져 볼 만하다. 베이비부머의 퇴직으로 주택연금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 하락이 가입을 서두르게 하는 트리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p>	<p>찾아야 한다. 그들이 보유한 자산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이 살고 있는 집이다. 내 집에 살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주택연금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2025년 12월말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150,071명이다.</p>	
228	그림4-20		첨부 32	그림 수정

270	하10~6	2022년 12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62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이 넘는 사람이 받는 노령연금도 월평균 105만원밖에 안 된다.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 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 수(17,805명)는 전체 노령연금 수령자(546 만 명)의 0.3%에 불과하다. 매달 필요한 노후생활비와 노령연금 수령액 사이의 빈틈을 채워야 하는 것은 은퇴자의 몫이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68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이 넘는 사람이 받는 노령연금도 월평균 112만원밖에 안 된다.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 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 수는 88,559 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6,305,606명)의 1.4%에 불과하다. 매달 필요한 노후생활비와 노령연금 수령액 사이의 빈틈을 채워야 하는 것은 은퇴자의 몫이다	내용 수정
274	하11	남은 배우자	남은 배우자는	내용 수정
277	하2~1	2023년 A값은 286만 1,091원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월 소득이 286만원을 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 까지 적용되는 A값은 319만 3,511원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소득이 월 319만원을 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내용 수정
281	하8~7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으로 2023년 적용 A값은 286만 1,091원이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하는데,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적용되는 A값은 319만 3,511원이다.	내용 수정
281	하6~4	감액되는 연금 규모는 소득에 따라 다르다. A값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 초과 금액의 5%,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1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15%,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은 20%, 400만원 이상은 25%를 감액한다. 이렇게 해서 연금액을 절반까지 감액할 수 있다.	감액되는 연금 규모는 소득에 따라 다르다. A값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 초과 금액의 5%,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1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15%,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은 20%, 400만원 이상은 25%를 감액한다. 이렇게 해서 연금액을 절반까지 감액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6년 6월 17일부터는 A값	내용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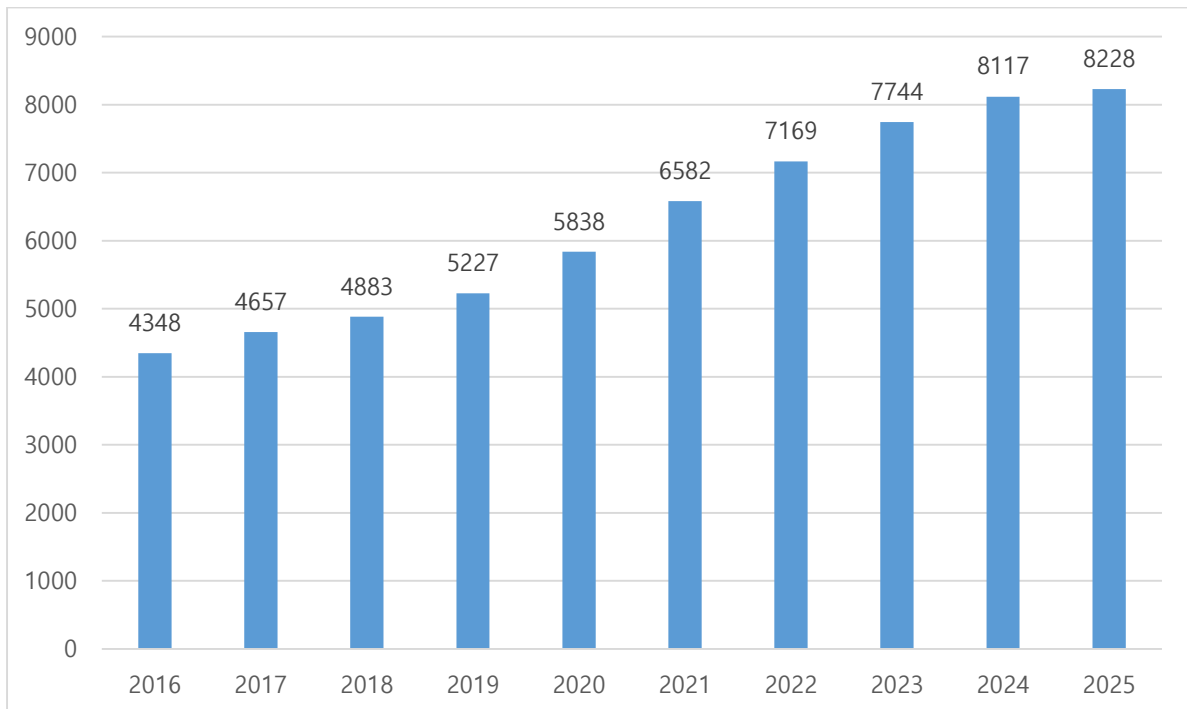
			초과 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 이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을 하지 않는다.	
283	상1~2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생명표에 따르면 60세 한국인이 80세까지 살아 있을 확률은 남성은 68.3%, 여성은 84.9%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2024년 생명표에 따르면 65세 한국인이 80세까지 살아 있을 확률은 남성은 72.4%, 여성은 86.8%다.	내용 수정
285	하11~9	비용은 70세 가입자를 기준으로 3억원 주택은 36만 7,000원, 5억원 주택은 73만 4,000원, 9억원 주택은 170만 2,000원 정도 된다.	내용 삭제	삭제
285	하5~4	담보주택의 가격과 관계없이 70세 가입자를 기준으로 7,000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내용 삭제	삭제
286	표4-15		첨부 33	표 수정
289	상1~3	1970년 당시 12.7년에 불과했던 60세 남성의 기대여명이 2021년에는 23.5년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 여성의 기대여명도 18.4년에서 28.8년으로 10년이나 늘어났다.	1970년 당시 12.7년에 불과했던 60세 남성의 기대여명이 2024년에는 23.7년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 여성의 기대여명도 18.4년에서 28.4년으로 10년이나 늘어났다.	내용 수정
289	상4~5	2021년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남성이 80.6세, 여성 이 86.6세다. 여성이 남성보다 6년은 더 사는 셈이다.	2024년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남성이 80.8세, 여성 이 86.6세다. 여성이 남성보다 5.8년은 더 사는 셈이다.	내용 수정
290	표4-18		첨부 34	표 수정
291	상1~5	생활비 수준이 은퇴생활 내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보통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활비를 덜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2021년에 국민연금연구원이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부기준으로 50대는 노후생	내용 삭제	삭제

		활비로 월 284만원, 60대는 월 257만원, 70대는 월 200만원, 80세 이상은 월 204만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인기준으로 는 50대는 월 180만원, 60대는 월 158만원, 70대는 121만원, 80세 이상은 126만원을 예상 했다.		
291	그림4-40		그림 삭제	삭제
299~300	하단 표	주택연금 담보제공방식과 특징	첨부33의 주택연금 담보제공방식 비교와 동일한 표로 대체	표 대체

[첨부]

첨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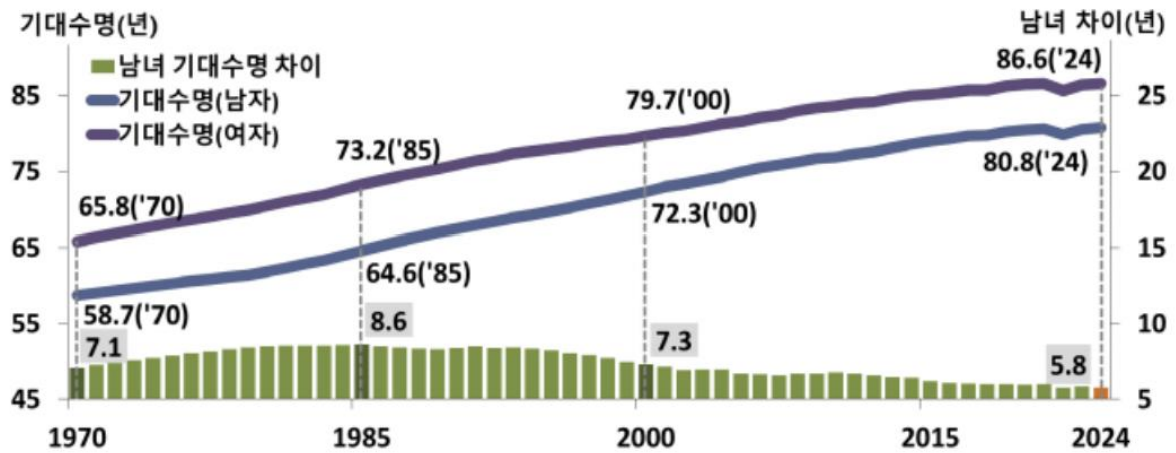
[그림 1-2] 100 세 이상 고령 한국인 증가 추이 (단위 : 명)



자료 : 국가데이터처 (주민등록연앙인구)

첨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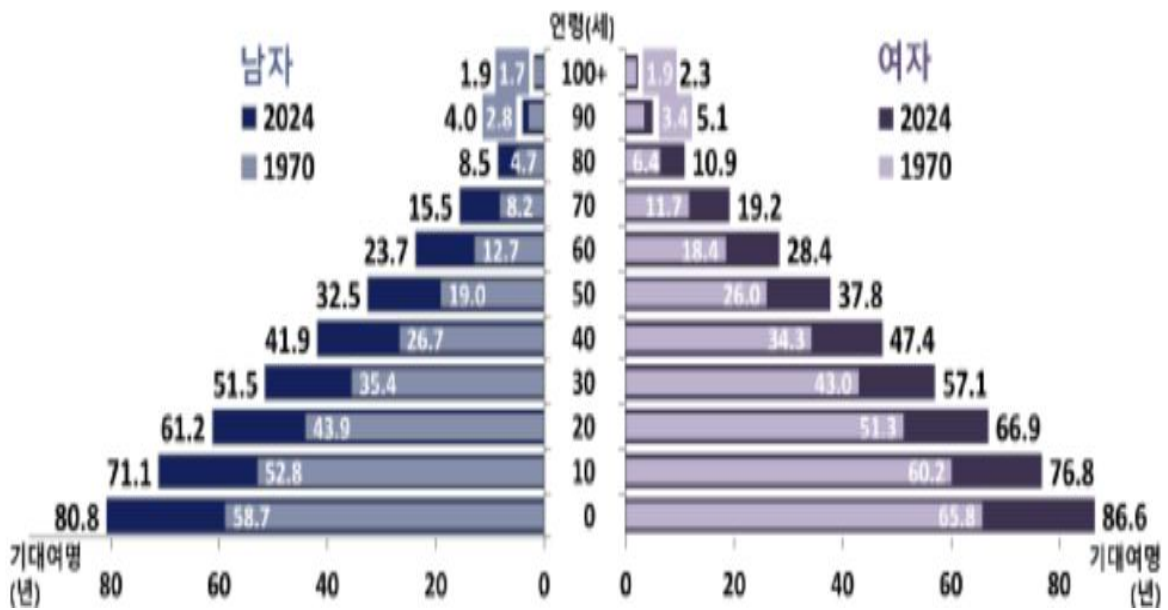
[그림 1-3] 남녀 성별 평균수명



자료 : 국가데이터처 (2024 년 생명표)

첨부3

[그림1-4]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1970, 2024년)



자료 : 국가데이터처 (2024년 생명표)

첨부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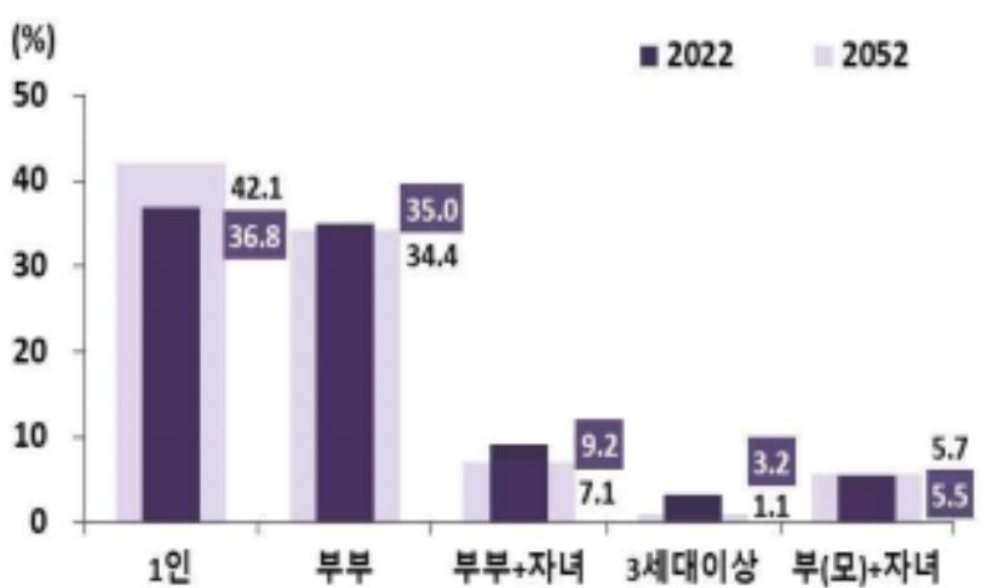
[그림1-6] 한국인 남녀의 유병기간과 기대여명(2024년)



자료 : 국가데이터처 (2024년 생명표)

첨부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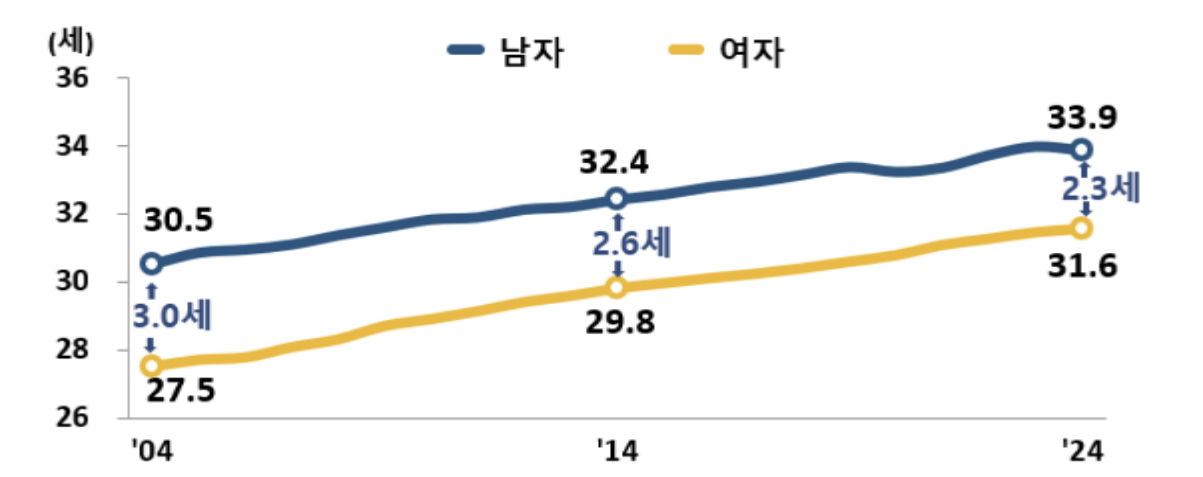
[그림1-7] 65세 이상 고령가구 유형별 구성비 변화



자료 : 국가데이터처 장래가구추계(2022~2052년)

첨부6

[그림1-9] 평균초혼연령(2004~2024)



자료 : 국가데이터처 혼인이혼통계(2024년)

첨부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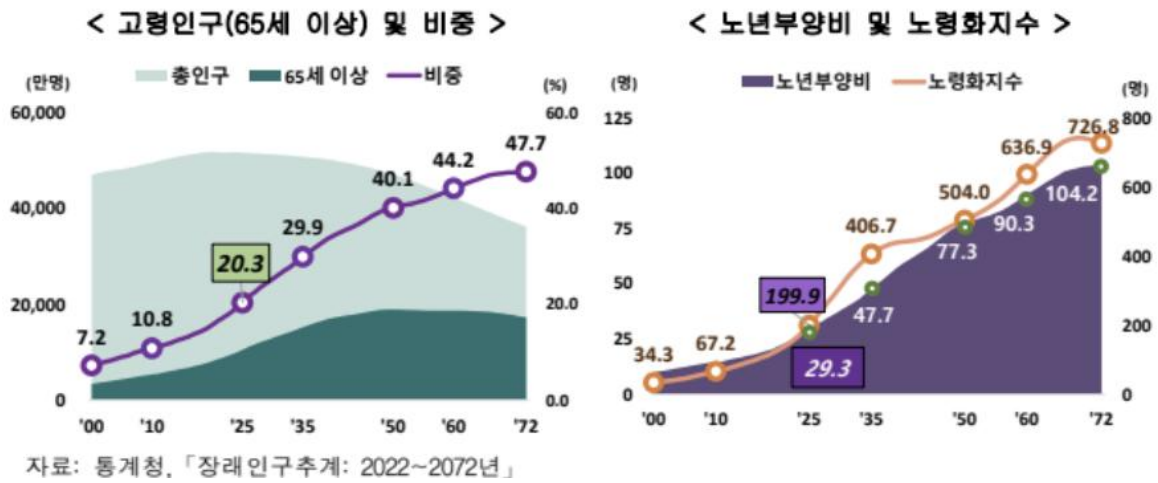
[표1-3]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 보유 현황 (단위:만원,%)

		자 산	금 용 자 산			실 물 자 산				
				저 축 액	전·월세 보 증 금		구 성 비	부 동 산	거 주 주 택	기 타
전 체		56,678	13,690	9,960	3,730	42,988	75.8	40,298	23,750	2,689
가 구 주 연 령 대	3 9 세 이 하	31,498	12,957	6,309	6,648	18,541	58.9	16,418	11,626	2,123
	4 0 ~ 4 9 세	62,714	16,401	10,786	5,615	46,313	73.8	43,063	27,465	3,251
	5 0 ~ 5 9 세	66,205	16,507	13,173	3,333	49,698	75.1	46,131	27,005	3,567
	6 0 세 이 상	60,095	11,236	9,475	1,761	48,860	81.3	46,652	25,757	2,207

자료 :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2025년)

첨부8

[그림1-11]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및 노년부양비



자료 : 국가데이터처 고령자통계(2025년)

첨부9

[그림1-13] 성별, 연령대별 고령인구 비율



첨부10

[표1-4] 연금 적립금 성장추이 (단위 : 조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민연금	470	512	558	622	639	737	834	949	891	1,036	1,213
사적연금	393	446	500	555	601	655	560	616	663	898	969
합계	863	958	1,058	1,177	1,240	1,392	1,393	1,565	1,553	1,934	2,181

자료 : 국민연금공단, 금융감독원, 생보사 등

첨부11

[표1-5] 사적연금 적립금 성장 추이 (단위 : 조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퇴직연금	107	126	147	168	190	221	256	296	336	382	432
세제적격	100	109	118	128	135	143	152	160	166	170	179
세제비적격	185	211	235	258	276	290	153	160	161	346	358
합계	393	446	500	555	601	655	560	616	663	898	969

자료 : 국민연금공단, 금융감독원, 생보사 등

첨부12 (그림 1-15를 표 1-6으로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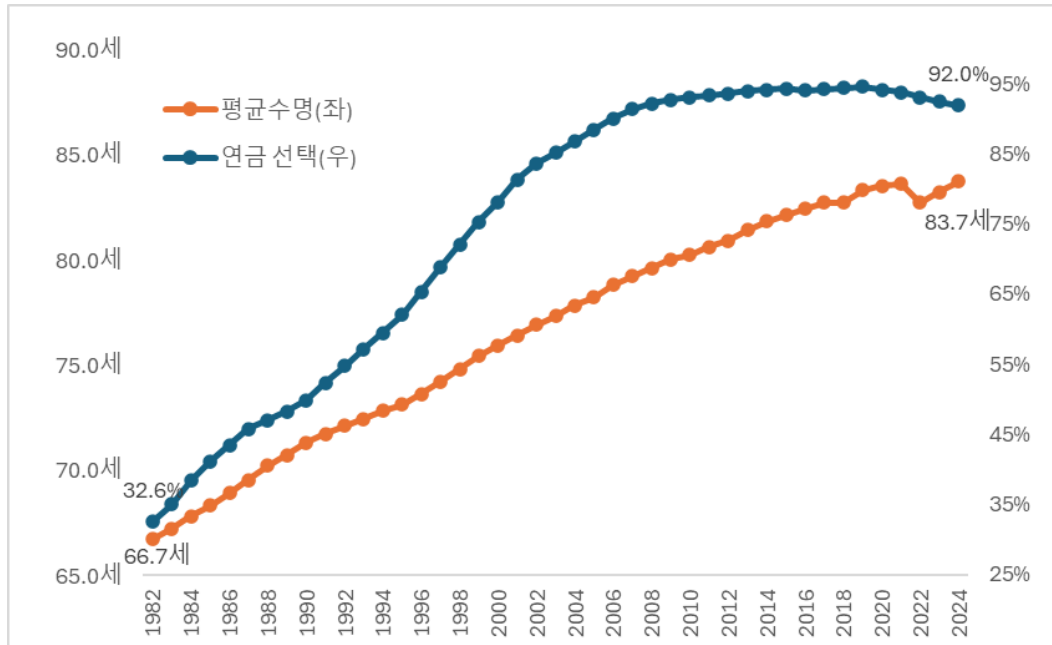
[표1-6] 경험생명표에 나타난 남녀 평균수명 추이 (단위:세)

회차	적용시기	남성수명	여성수명	비고
제1회	1988	65.7	75.6	국내 최초 경험생명표 도입
제2회	1993	67.3	77.0	
제3회	1997	70.8	80.5	여성 수명 80세 시대 진입
제4회	2002	72.8	82.3	
제5회	2006	76.4	84.4	
제6회	2009	78.2	85.5	
제7회	2012	80.0	86.3	남성 수명 80세 시대 진입
제8회	2015	81.4	86.7	
제9회	2019	83.5	88.5	
제10회	2024	86.3	90.7	여성 수명 90세 시대 진입

자료 : 보험개발원

첨부 13 (그림 1-16 을 그림 1-15 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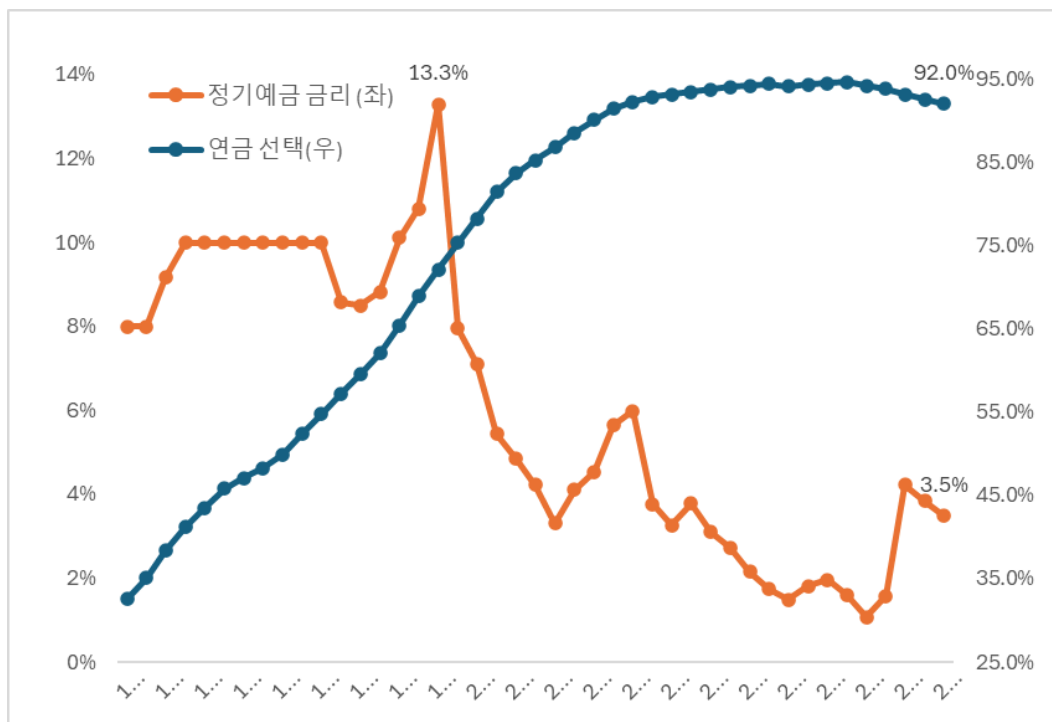
[그림 1-15] 평균수명과 공무원연금의 연금선택 비율



자료 : 공무원연금공단,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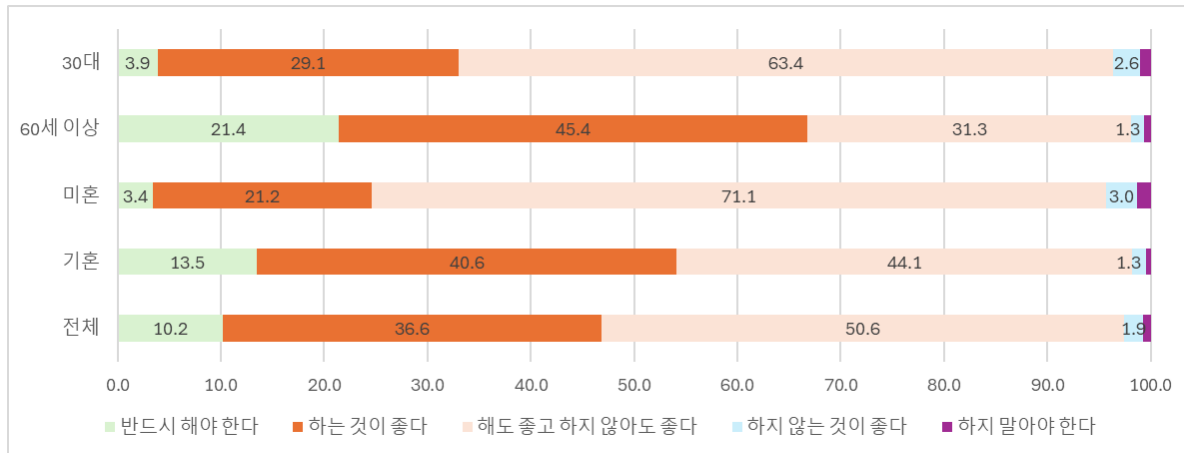
첨부 14 (그림 1-17 을 그림 1-16 로 대체)

[그림 1-16] 정기예금(1 년) 금리와 공무원연금의 연금선택 비율



첨부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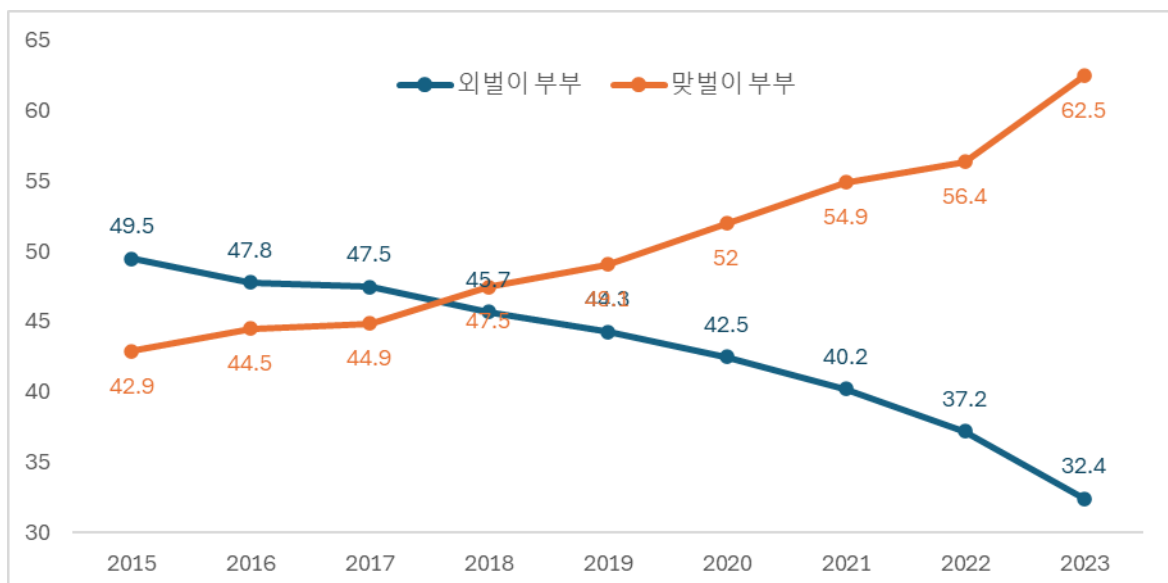
[그림 2-4] 결혼에 대한 견해



자료 :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2024 년)

첨부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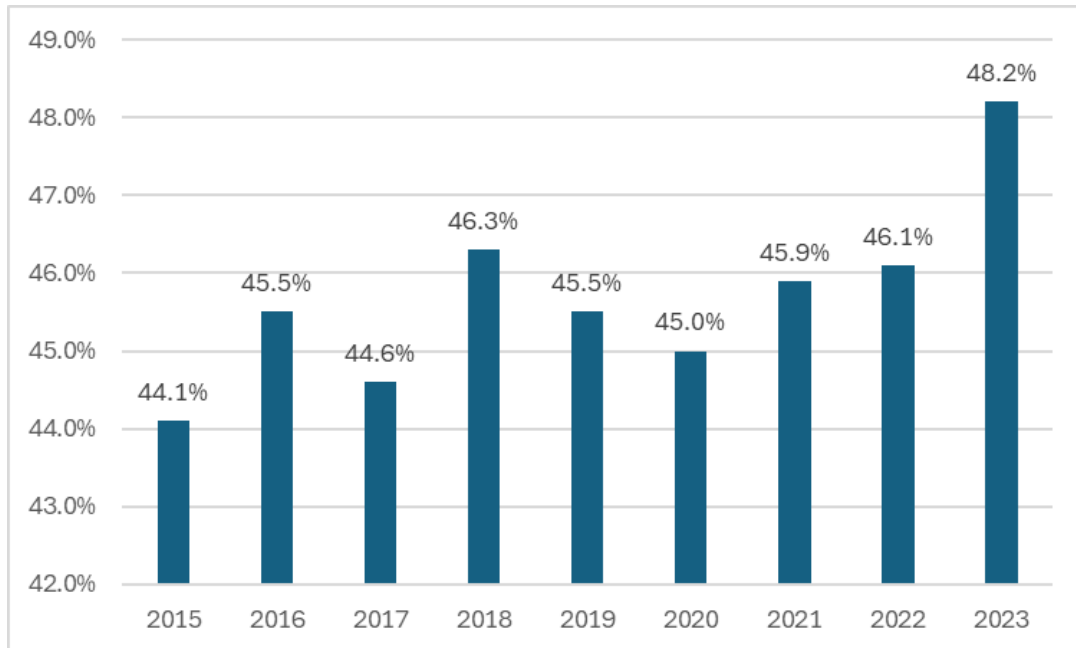
[그림 2-5] 초혼 부부의 맞벌이, 외벌이 추이



자료 : 국가데이터처 신혼부부통계 (각 연도)

첨부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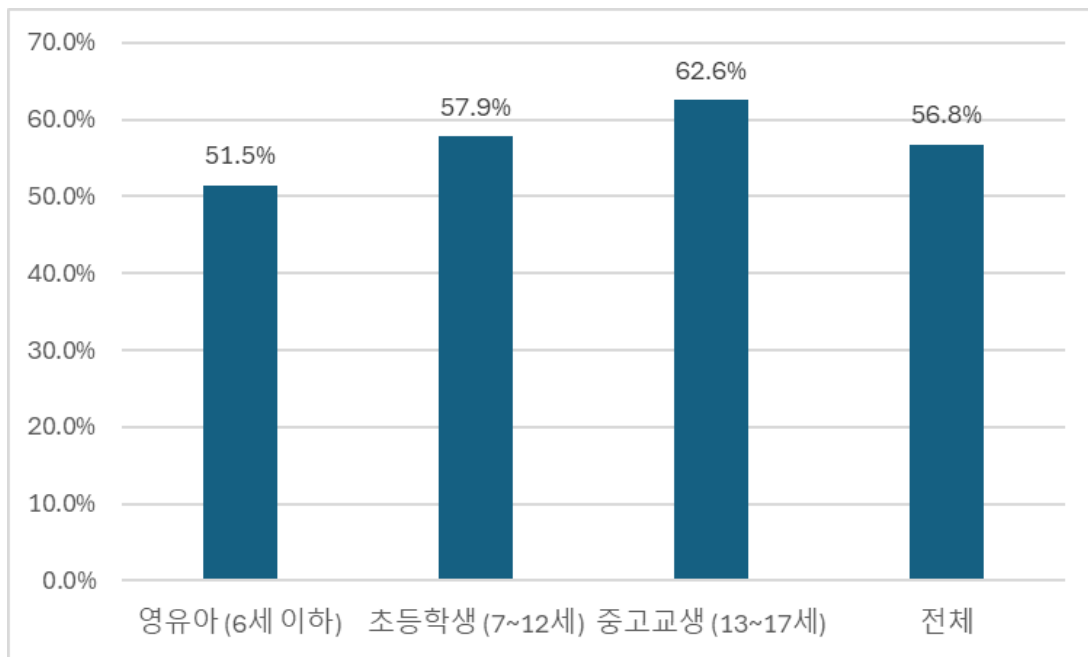
[그림 2-6] 유배우가구 중 맞벌이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 국가데이터처 지역별 고용조사 (2023 년 하반기)

첨부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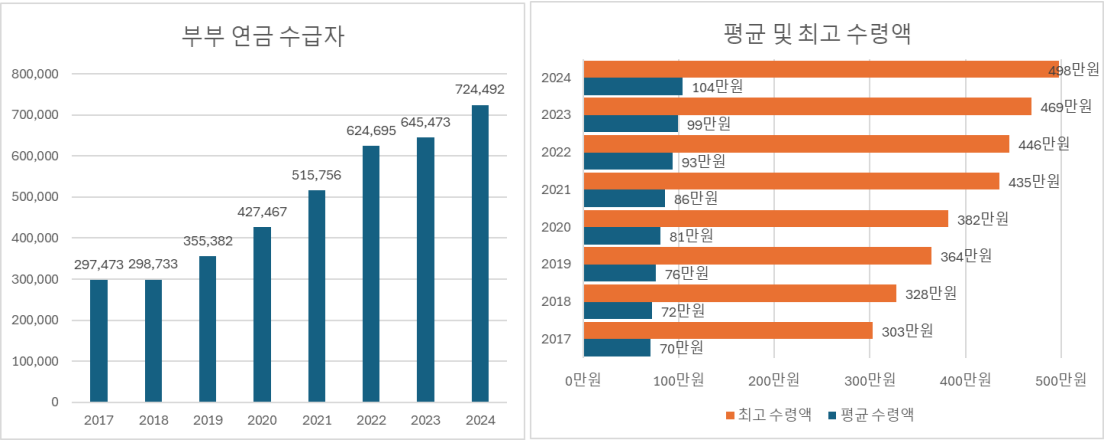
[그림 2-7] 막내자녀 연령별 맞벌이 비중



자료 : 국가데이터처 지역별 고용조사 (2023 년 하반기)

첨부 19

[그림 2-8] 부부 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 : 국민연금공단

첨부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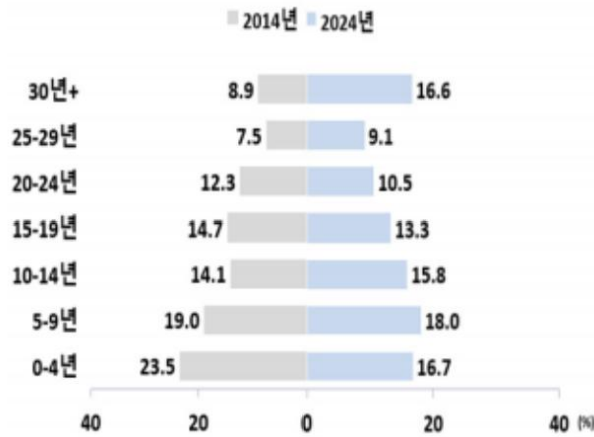
[표 2-2]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소득대체율

구분	1988-1998년	1999-2007년	2008-2025년	2026년 이후
상수	2.4	1.8	1.5(2008년, 그 후 매년 0.015씩 감소)	1.29
소득대체율	70%	60%	50%(2008년, 그 후 매년 0.5%p씩 감소)	43%

자료 : 국민연금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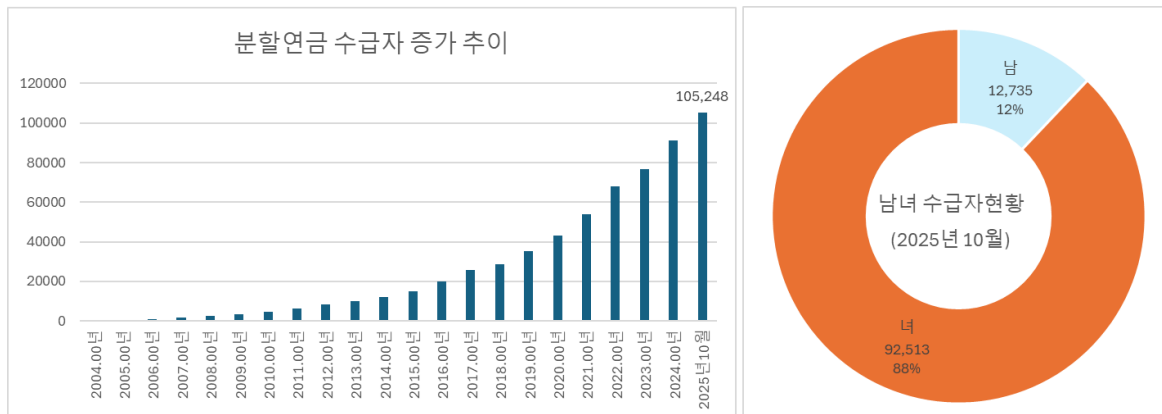
첨부 21

[그림 2-9] 혼인지속 기간별 이혼 구성비 (2014 년, 2024 년)



첨부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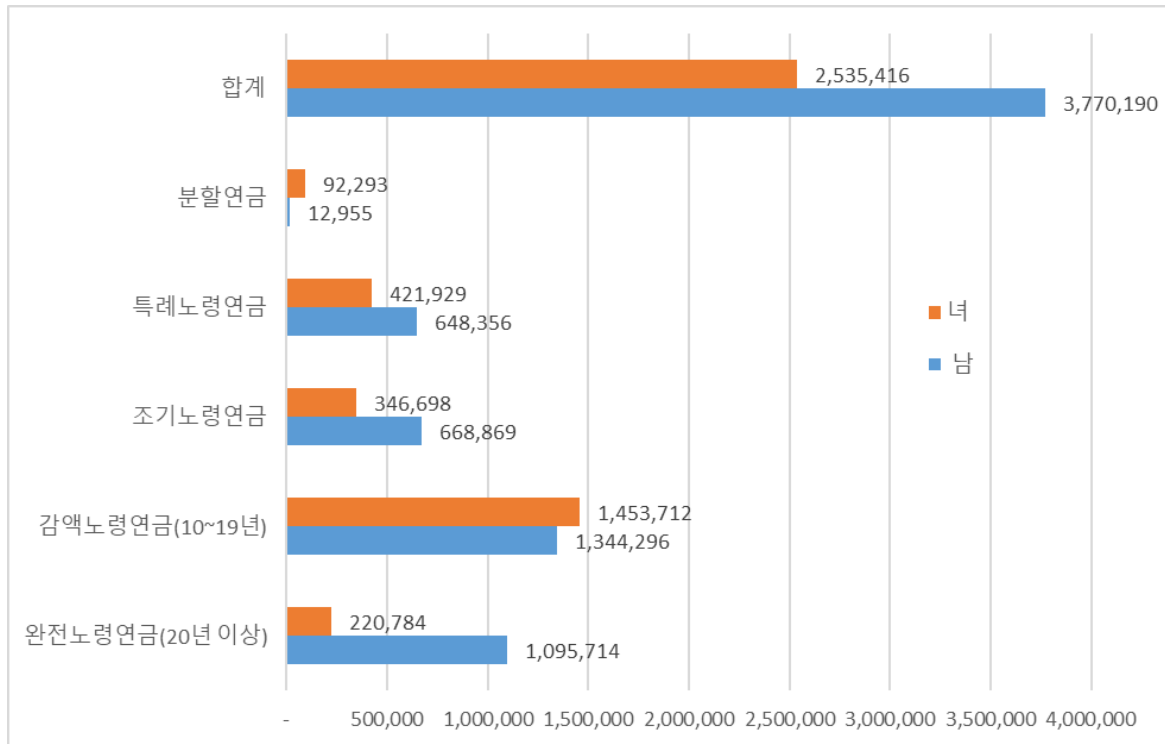
[그림 2-10] 분할연금수급자 추이



자료 : 국민연금공단

첨부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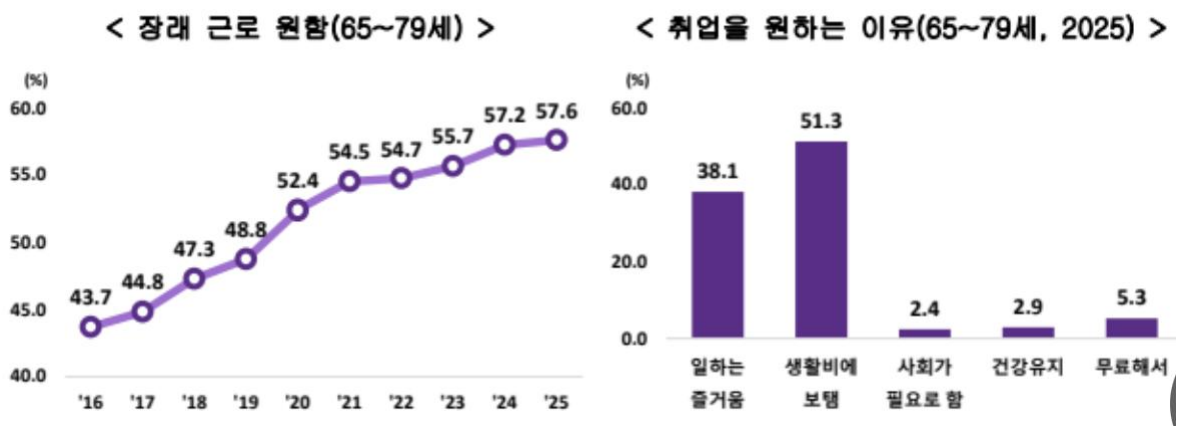
[그림 2-13]노령연금 종류별, 성별 수령현황



자료 : 국민연금공단

첨부 24

[그림 3-7] 고령자의 취업 의사와 취업을 원하는 이유



자료 : 국가데이터처 고령자 통계(2025 년)

[표 3-12] 성별, 연령별 유병기간 제외 기대여명 (2014~2024) (단위 년, %, %p)

			기대여명 (A)			유병기간 제외 기대여명 (B)			건강기간 비율 (B/A*100)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14	0세		81.8	78.6	85.0	65.2	64.7	65.7	79.7	82.4	77.3
2022	0세		82.7	79.9	85.6	65.8	65.1	66.6	79.5	81.5	77.7
2024	0세		83.7	80.8	86.6	65.5	64.6	66.4	78.2	79.9	76.7
	10세		74.0	71.1	76.8	56.4	55.6	57.3	76.3	78.3	74.5
	20세		64.1	61.2	66.9	46.9	46.1	47.7	73.2	75.3	71.2
	30세		54.3	51.5	57.1	37.5	36.7	38.3	69.0	71.3	67.0
	40세		44.7	41.9	47.4	28.3	27.6	29.1	63.5	66.0	61.3
	50세		35.2	32.5	37.8	19.7	19.2	20.3	56.1	59.0	53.6
	60세		26.1	23.7	28.4	12.2	11.8	12.5	46.6	49.6	44.2
	70세		17.5	15.5	19.2	6.5	6.3	6.7	37.1	40.3	34.9
	80세		9.9	8.5	10.9	3.2	2.9	3.4	32.0	34.1	30.8
	85세 이상		6.9	5.9	7.6	2.2	2.0	2.3	31.2	33.6	30.1
총 합	'22 대비	0세	1.0	0.9	1.0	-0.3	-0.5	-0.2	-1.3	-1.6	-1.1
	'14 대비	0세	1.9	2.2	1.6	0.3	-0.1	0.7	-1.5	-2.4	-0.6

자료 : 국가데이터처 생명표(2024 년)

첨부 26

[표 3-14]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과 재산

소득 종류		부과 여부	적용 비율
사업소득		○	100%
기타소득		○	100%
이자/배당 소득		○ 연간 1,000만원 초과	100%
근로소득		○	50%
연금 소득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	50%
	사적연금소득 (퇴직연금, 개인연금)	×	-

재산 종류	적용 비율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과세표준액)의 100%
전월세	{보증금+(월세의 40배)}의 30%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첨부 27

[표 3-15] 지역건강보험료 산출 예시 (2026 년 기준)

■ 소득 보험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월액	28만원 이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6,386만원
보험료율	-	7.19%	7.19%	7.19%	7.19%	7.19%	7.19%	7.19%
소득보험료	20,160원	71,900원	143,800원	215,700원	359,500원	719,000원	2,157,000원	4,591,740원
장기요양보험료	2,640원	9,440원	18,890원	28,340원	47,240원	94,480원	283,440원	603,370원
예상지역건보료	22,800원	81,340원	162,690원	244,040원	406,740원	813,480원	2,440,440원	5,195,110원

■ 재산 보험료		2억원	5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78억원
재산세 과표	439	757	1001	1191	1341	1571	1991	2271	
재산 점수	439	757	1001	1191	1341	1571	1991	2271	
점수당 보험료	211.5원	211.5원	211.5원	211.5원	211.5원	211.5원	211.5원	211.5원	211.5원
재산보험료	92,840원	160,100원	211,710원	251,890원	283,620원	332,260원	421,090원	480,310원	
장기요양보험료	12,190원	21,030원	27,810원	33,090원	37,260원	43,660원	55,330원	63,110원	
예상지역보보험료	105,030원	181,130원	239,520원	284,980원	320,880원	375,920원	476,420원	543,420원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건강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첨부 28

[표 3-16] 성별, 연령별 일반건강검진 항목

구 분		대상시기	비 고
총콜레스테롤	이상지질혈증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 마다)	남성(24,28,32 ...)
고밀도(HDL) 콜레스테롤			여성(40,44,48 ...)
중성지방			
저밀도(LDL) 콜레스테롤			
B형간염검사		40세	보균자 또는 면역자 제외
C형간염검사		56세	
폐기능검사		56, 66세	
골밀도 검사		54, 60,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검사		66세 이상 (2년 마다)	66, 68, 70, ...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20~34세(2년마다), 35~39세(1회), 40~49세(1회), 50~59세(1회), 60~69세(1회), 70~79세(1회)	20, 22, 24, ... 32, 34세 - 2년에 1회 35, 36, ... 38, 39세 - 해당 연령 중 1회 40, 50, 60, 70대 - 해당 연령대 각 1회
	조기정신증	20~34세(2년마다)	20, 22, 24, ... 32, 34세 - 2년에 1회
생활습관평가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66, 70, 80세	
치면세균막검사		40세	구강검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첨부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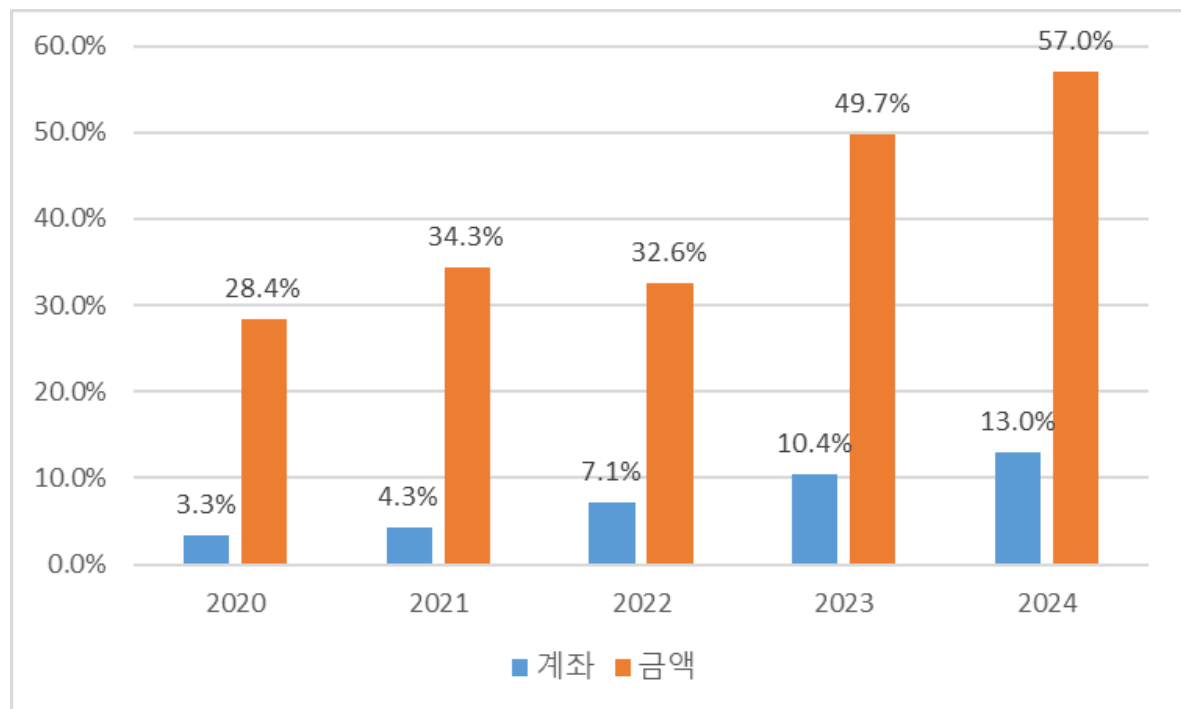
[표 3-18] 본인부담금상한액 기준(2026 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43만원	181만원	245만원	404만원	580만원	698만원	1,096만원
그 밖의 경우	90만원	112만원	173만원	326만원	446만원	536만원	843만원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첨부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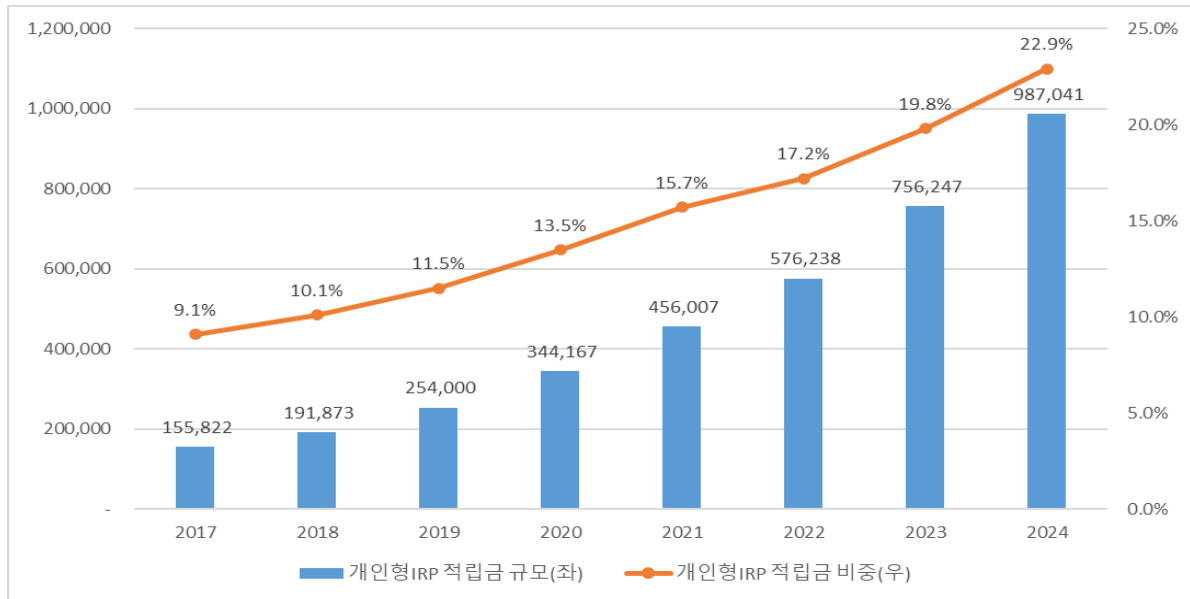
그림 4-18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에서 연금수령 비중



자료 : 고용노동부

첨부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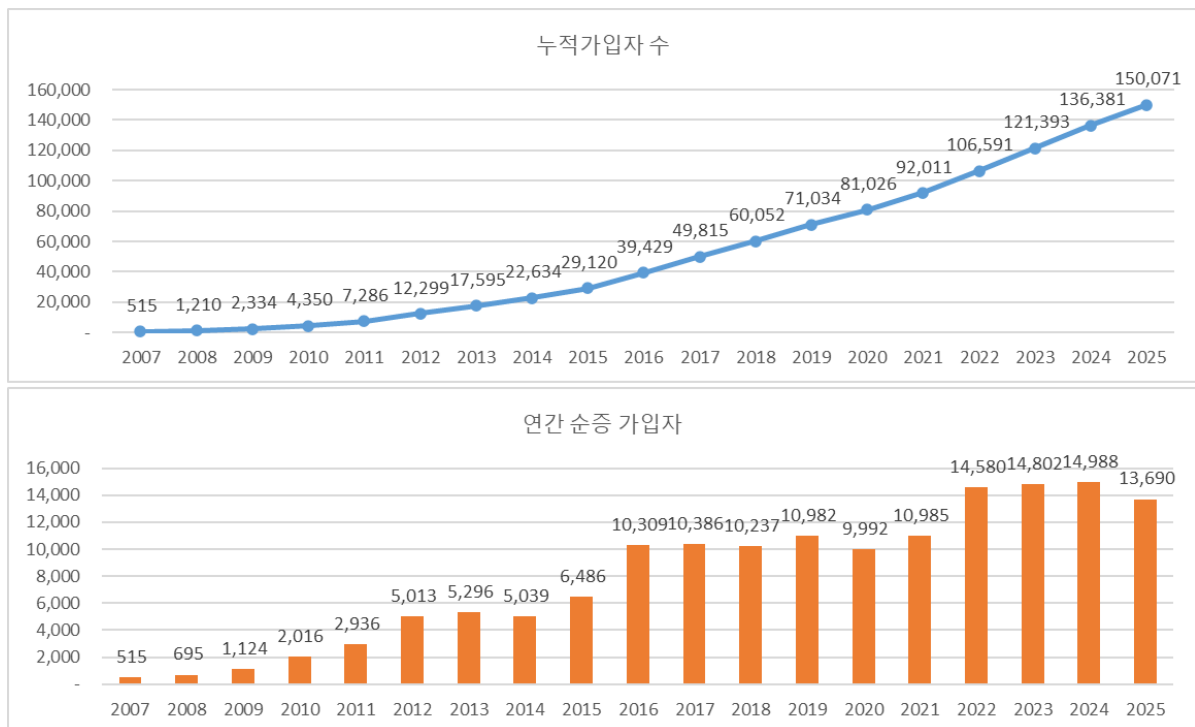
[그림 4-19]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개인형 IRP 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고용노동부

첨부 32

[그림 4-20] 주택연금 가입자 현황



자료 : 주택금융공사

첨부 33

[표 4-15] 주택연금 담보 제공 방식 비교

구분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담보제공 방법 (소유권)	-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 신탁등기(공사)
담보주택 관리	- 연금가입자가 담보주택의 소유자로서 관리의 주체	- 연금가입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담보주택 관리의 주체
담보주택 관리 비용	- 담보주택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금가입자가 부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제세공과금 포함)	- 좌동
배우자 승계	- 연금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자녀 등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소유권을 100% 확보 후 주택연금 승계 가능	- 연금가입자 사망 시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고,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별도 등기절차 없이 주택연금 승계 가능
잔여재산 귀속	-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귀속	-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사전에 연금가입자가 지정한 귀속권리자에게 귀속
실거주요건	- 연금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실거주해야 함 - 공사의 주민등록 이전 동의를 받으면 실거주요건 미적용	- 좌동
임대차	- 보증금 있는 임대차 불가 (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 - 담보주택 전부 임대는 공사로부터 주민등록 이전 승인 특한 경우만 가능	- 보증금 있는 임대차 가능 ※ 보증금은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 - 담보주택 전부 임대는 공사로부터 주민등록 이전 승인 특한 경우만 가능
담보취득비용	- 등록면허세 등 세금, 법무사수수료 등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7.12월까지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현재 한시적으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등기관련 비용을 공사가 지원 중)	- 등록면허세 등 세금, 법무사수수료 등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 (현재 한시적으로 공사가 지원 중)
담보주택 유형	-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주거면적이 50%이상인 복합용도주택	-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이용 제한 주택 1. 복합용도주택 2. 「농지법」상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 등 주택 소유자의 자격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주택 3. 임대차보증금 있는 임대차계약이 5건 이상인 임대목적 주택(단, 담보주택이 단독주택인 경우 보증금 있는 임대차 허용건수 제한 없음)

자료 : 주택금융공사

첨부 34

[표 4-18] 노후생활비 얼마나 필요한가? (단위: 만원/월)

구분	필요 최소 노후생활비		필요 적정 노후 생활비	
	부부	개인	부부	개인
전체	217.1	136.1	296.9	192.1
서울	248.2	156.8	337.1	219.8
광역시	215.3	130.7	298.7	186.0
도	208.3	132.1	283.6	186.3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2023 년 제 10 차 노후보장패널조사)